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61/1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8학년도 수능 33~37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ㅎ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ㅎ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ㅎ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ㅎ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ㅎ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발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나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ㅎ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ㅎ야 시름겨워 ^ㅎ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ㅎ야 갈 길 몰라 ^ㅎ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 요양: 청나라의 심양.
- *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 박제상: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불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ㅎ: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성려: 임금의 염려.
- *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뾰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A]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꺾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 간죽하수문주인: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뒤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